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과 맞지 않은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15일)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고통 없는 세상 기원하며… 조계사는 10월 14일 중양절을 맞아 제10회 조계사 국화향기나눔전 '생명평화와 감사의 중양절 국화수륙재'를 봉행했다. 가을국화로 장엄한 조계사 도량에서 열린 이날 수륙재에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모든 생명을 위로하고 전쟁 · 기아 · 질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절터 복원 · 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불교계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 플랫폼 개발 잇달아

보원사, 보원사지 복원 공모에
'마인 크래프트' 활용해 화제돼
월정사,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
'청소년명상축전' 등서 선보여
동국대도 명상 플랫폼 개발 중

"메타버스, MZ세대 포교 필수
새로운 플랫폼 활용 적극성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 달라졌다. 산 속에서 은둔하며 수행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가상현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적극적인 포교 · 수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다.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한발 늦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사례다.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생산 활동과 사회생활 등 일상을 영위하는 3차원 가상세계, 일종의 '가상 속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포교 사례의 대표는 서산 보원사(주지 정경)이다. 보원사는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보원사지 복원 대회와 공모전을 개최했다. 제11회 내포 가야산 산사예술제의 일환으로 7월 25일과 8월 1일 열린 복원 대회에는 서산지역 학생부터 전국 종립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김선임 보원사 종무실장은 "보원사는 보원사지를 활용한 영화제, 영화공모전을 청소년 대상으로 꾸준히 해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했고, 최근 MZ세대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원사지의 역사와 가치를 전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내포 가야산에는 23개의 절터가 있다. 이를 가상 현실 속에서 복원하는 대회와 공모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8월 12일 열린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학생 백 일장 등의 행사와 월정사 화엄선문화연구소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월정사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은 뇌파측정기와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요가, 명상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정사 기획국장 월엄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는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를 MZ세대와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월정사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은 내년도 베타 버전을 선보이려 했는데, 메타버스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내후년에 플랫폼을 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메타버스를 기반한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R&D기획연구에 나섰다.

동국대는 '비대면 사회에서 MZ 세대의 정신건강 관리 · 회복을 위한 메타버스 디지털 솔루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를 전담할 '명상메타버스플랫폼기획연구단'(단장 김관규)도 출범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명상'을 정신의학 및 AI 어댑티브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와 융합시킨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연구단은 △메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 회복 솔루션 개발 △뇌과학 기반 심신치유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심신 치유 솔루션의 임상 연구 및 플랫폼화 △심신 치유 · 예방의 글로벌 리딩용 의료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단장을 맡은 김관규 동국대 연구부총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MZ세대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심신 건강 치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메타버스 기반 포교 · 명상 콘텐츠 활용과 개발에 전문가들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섣부른 투자보다는 공공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제언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포교 콘텐츠 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과 불교와의 간극에 있다"며 "재원을 성급히 투여하기 보다는 공공 콘텐츠과 플랫폼들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시대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도 "MZ세대 포교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포교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다. 서산 보원사의 '보원사지 복원 대회 · 공모전'은 매우 확장성이 좋은 콘텐츠"라며 "향후 메타버스와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MZ세대가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피카소' 중광 스님 미술관 제주 건립 본격화

제주도, 중광미술관 건립위원회 발족

김종규 이사장 등 위원 위촉
저지문화지구에 부지 마련
지상2층 · 지하2층 규모로
2025년 미술관 개관 예정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중광 스님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이 제주도립으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건립추진위는 위촉직으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비롯한 도내 · 외 인사 11명과 당연직으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건립추진위는 향후 미술관 건립에 관한 자문 및 중광 스님 작품 수집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제주도가 중광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대표이사가 중광 스님 작품 432점을 기증하면서 부터다. 이에 제주도는 7월 1일 기증자인 가나아트센터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간 중광 스님 미술품 기증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중광미술관이 건립되는 곳은 제주 저지문화지구, 일명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다. 제주도는 저지문화지구에 부지를 마련하고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미술관을 건립한 예정이다. 현재 중광미술관 개관은 오는 2025년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위촉식은 2025년 미술관 개관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미술관 건립에 앞서 중광스님에 대해 남다른 조예와 애정을 지닌 전문가 여러분께서 작품 전시와 수집 방향 등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철저한 미술관 건립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중광 스님의 작품세계를 세계에서 가장 잘 구현해내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미술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립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작품 수집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현을생 서귀포시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건립추진위원으로 위촉된 김종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광 스님은 수행자이면서도 다양한 예술분야를 섭렵하고 뛰어난 작품세계를 보였다. 스님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서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 스님의 고향인 제주에 건립되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 중광미술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하귀 출신인 중광 스님(1934~2002)은 1960년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했지만 불교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기행 때문에 1979년 승적을 박탈됐다.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 참석해 '나는 걸레'라는 자작시를 낭송한 후 '걸레스님'으로 불렸다. 실제 그는 스스로 '걸레'라고 칭할 만큼 승속(僧俗)의 경계 없이 살았다. 형식과 틀에 구애 받지 않는 작품 세계는 '한국의 피카소'라는 별칭을 안겼다. 2000년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마지막 전시인 '괜히 왔다 간다'를 열고 2002년 3월 양산 통도사에서 입적했다. **신성민 기자**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포교원 공동 주최 대중공사 4 · 5면

2021년 한국불교학회 추계특별학술대회


구하대종사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


한암대종사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영축산 통도사 구하(九河, 1872~1965) 대종사와 오대산의 한암(漢巖, 1876~1951) 대종사,
그리고 경봉, 탄허, 월하, 만화 선사 등 두 산문의 불교 지성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망하는 학술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장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18호 고순청세미나실 ■ 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13:00~18:30 ■ 문의 : 02)2263-1973 한국불교학회

■ 발표주제와 순서 및 시간

· **개회사** : 고 영 섭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장)
· **치 사** : 중봉 성파 (제15교구 통도사 방장), 자산 성우 (동국대학교 이사장)
· **축 사** : 이산 현문 (제15교구 통도사 교구장), 퇴우 정념 (제4교구 월정사 교구장)
윤 성 이 (동국대학교 총장)

■ 발표장소 교통편 안내

· **장 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18호 고순청세미나실
· **주 소** :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언덕으로 끝까지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이용) 좌측에 있는 2개의 건물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5층 큰 건물(혜화관)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7212. 간선버스 144, 301, 420, 407

〈제1부〉 사회 : 김지연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13:10~13:40	九河와 漢岩의 관계 검토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13:40~14:10	漢岩의 통도사 인연과 石潭有性 **염중섭** (자현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14:10~14:40	九河의 독립운동 자료, 개요와 성격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14:40~15:10	漢岩의 종단 인식과 조계종의 성립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15:10~15:40	九河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 **최두헌**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휴 식 (20분)	

〈제2부〉 사회 : 최원섭 (한국불교학회 대외협력이사)

15:40~16:10	漢岩과 鏡峰의 서간문 법거량 **윤창화** (민족사 대표)
16:10~16:40	九河의 문집과 통도사지 간행의 불교사적 의의 **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박물관장)
16:40~17:10	근현대 오대산 삼화상 어록과 증언록 간행의 불교사적 가치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
17:10~17:40	6.25 당시 통도사의 야전병원과 호국불교 역할 **이성수** (불교신문 취재부장)
17:40~18:10	경봉과 탄허의 인연과 서간문 **서왕모** (정도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총 평 :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관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